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4월 4일 (토) 제 1772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2020 고난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붕괴되었지만, 고난주간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야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가운데, 그 적을 퇴치하려고 열방들이 고난의 행군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이 겹쳤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뚝뚝뚝 걸어가고 계신 중이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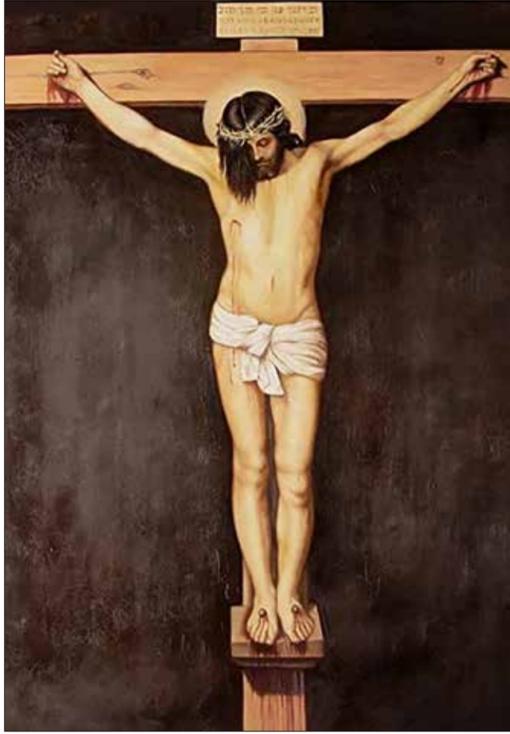
오늘의 현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약한 자가 돼 두려워하는 형편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정해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의 여정 중에 계신 주님을 보며 위로를 받고 강건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이 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의 무한정한 탐욕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키고 가꿔야 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류독감, 사스,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만도 이렇게 많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이 깨어진 상태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풍요와 안정 속에서 우리 신앙과 삶이 얼마나 희석됐는지 자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 세속화되고, 교만과 매

너리즘에 빠져 생명력을 잃은 우리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어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르짖어야 한다. 왜 주님께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시는 걸까,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서 완전한 자를 찾다니셨을까? 아니면, 애당초 완전한 자를 찾으러 오셨을까? 완전한 자를 찾으러 땅에 오셨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선언을 전혀 모르신 채 땅위에 오셨다는 말이니 아무래도 합당치 않은 추측이다.

만약 그런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하향평준화 시켜 낮고 약한 자로 세상에 오셨을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을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코



Christ On The Cross by Diego Velazquez

로나바이러스에 더더욱 취약하다는데, 우리 주님께선 애당초 약한 자로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를 향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신 것을 보면 질병에 앞 서 서있는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게 분명한 걸 보면, 주님께선 완전한 자를 찾아 땅위에 내려오시지 않은 것도 너무도 분명하다. 주님께선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

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시려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일부로 약한 자로 죽으시려고 고난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뚝뚝뚝 걸으신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엔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육체의 강함도 건강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인간 최고의 약함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을 터.

<4면으로 계속>

한인교회들 대부분 온라인예배

코로나19 장기화... 릴레이기도, 가정예배회복 간증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미국 상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준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사회와 교회도 큰 영향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대도시인 만큼 발병확률도 높아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온라인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교협은 뉴욕총영사관이 보낸 5개 주(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의 상황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별 확진자수와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JFK공항 출입국 동향과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을 안내하고 있다.

뉴욕교협 릴레이 및 9.1(구원)기도운동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 24일 2가지 기도운동을 발표하고 뉴욕교협의 참여를 부탁했다.

하나는 코로나19 퇴치 및 극복을 위한 전 회원 릴레이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40일 동안 정시에 1분 이상 기도하는 9.1(구원) 기도운동이다.

첫째, 전 회원 릴레이기도는 코로나19 퇴치와 극복을 위해 임원들을 시작으로 뉴욕교협에 속한 전 교계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3월 25일부터 4월 12일(부활주일)까지 뉴욕교협 회관에 설치된 기도실 또는 각자 정

한 기도처(교회, 사무실, 집 등)에서 릴레이로 기도한다.

참여방법은 먼저 교협총무(이창중 목사)와 기도 스케줄을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1시간 기도하면 된다. 릴레이기도 참가자는 정해진 날에 한 끼를 금식하며 "위기의 때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기도하게 된다.

둘째, 40일 9.1(구원)기도다. 3월 26일부터 5월 4일(월)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에 각자 거주지에서 코로나19 퇴치 및 극복을 위해 적어도 1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알림] 코로나19로 인한 신문제작 및 배부 관계로 3월 28일자를 전격 휴간했습니다. 당분간 편집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개혁의 땀방울- 조진모 목사 7면



투고 김상덕 목사, 한기덕 권사, Feona Hong 집사 11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Wedding,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발행인 칼럼

사랑의 반대말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대부분 쉽게 대답할 것이다. “미움”이라고. 아니다. 틀렸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15세 때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홀로 살아남아 평생을 기자, 작가, 교수로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살았던 유대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은 이렇게 말했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it's indifference(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엘리 위젤은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라고 했다. “침묵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에는 맞서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팔짝 팔짝 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위치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다. “무관심의 절정”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작품으로서 철학자 필리프 프리와의 대답을 듣고 있는 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무관심이고, 이 땅에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관심이기 그의 책 제목, “무관심의 절정”은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도 여기에 있으셨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태복음 11:17). 무엇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관심에 대한 강한 질타이시다.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질병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도져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이 세상에도, 다음 세대에도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야말로 무관심의 절정을 보여주었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앞으로 누릴 유업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걸으신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저리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주간을 보낼 수는 없다.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과 죽으시기까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고난주간을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의 절정”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으로 고난주간을 지날 수 없다.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자. 가족에도, 우리 주변에도, 관심을 갖자. “무관심의 절정”이 아닌 “관심의 극치”로 살아보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어디선가 들리는 듯 하지 않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었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었하느냐”

무서운 전염병 확산에도 교회는 성장했다!

TGC, 역사적으로 본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 성장’ 요약소개(상)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몇 세기만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됐을까?” 이 질문은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쓴 책 “기독교의 발흥(The Rise of Christianity: How Did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o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에 달린 부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데, 그중 한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다. 정말로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발흥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전염병의 확산에 교회가 얼마나 눈에 띄게 대처해왔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나는(Glen Scrivener, 저술과 강연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복음주의 사역단체인 Speak Life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Gift 등이 있다)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네 번의 팬데믹, 즉 세계적인 전염병 현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현상에 대처해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 각각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혹시 현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고요되는 변화가 있길 소망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용기 있게 희생을 감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간 모습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이 큰 희생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자신이 병을 옮기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엔 저들이 보여준 지혜가 더욱 사려 깊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바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구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심령도 깨어나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작금의 팬데믹을 겪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지혜를 올바르게 발휘하게 되길 소망해본다(Responding to Pandemics: 4 Lessons from Church History).

1.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주후 16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가 로마제국을 통치하던 시절, 전염병이 발생했다(혹자는 이에 대해 천연두라고 추정한다). 약 15년간이나 지속된 그 병은 제국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스타크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 인구는 4만5천 명 정도였고, 이는 전체 인구의 0.08%에 불과했다. 이 미약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세상의 침묵과 커다란 호응을 얻어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러한 보고서를 남겼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가까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됐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것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듯 ‘타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흡사했는데, 이는 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드라이브 프르’ 예배사역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 Baum Temple AME Zion Church)

밖에 있던 다른 이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디오니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유세비우스 교회사 7권 22장 7-10절).

전염병은 죽음과 같은 인생의 귀로를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약하고 덧없는 존재일 뿐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은 반문화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2세기 당시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저들의 칭찬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회심케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한 세기 후에 다시 펼쳐

졌고, 어떤 마을은 영원히 발길이 끊어지기도 했다. 로마의 군대와 기간 시설은 전반적으로 쇠퇴했다. 바로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게 됐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ريان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니 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یدن, 동족 간에 마땅히 그해야 하듯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یدن [중략]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일یدن 간에 말이다.”

크리스천의 치사율은 일반인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았다(단지 1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다. ‘단지’라고 하기에 그조차 안타까운 수치지만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염될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낳았고, 감염된 자의 입장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더욱 강해졌다. 더욱 강력한 사회의 일원이 돼 더욱 많은 수가 생존했다. 그 회복력도 더 강했는데,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서도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공동체로서도 더 강해져서 각자가 직면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해졌다.

이처럼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주후 300년경에 이르러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 로드니 스타크는 전염병 확산이 그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는 답변을 제시한다.

(다음호에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에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4)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4월 6일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엘피스 패밀리, 제 3회 힐링캠프 일정 취소

엘피스 패밀리 가정사역원은 4월 13일부터 예정되었던 제 3회 힐링캠프 일정을 전면 취소합니다.

이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COVID 19으로 인해 아픔에 처한 여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 문의: 박운송 목사 213-700-9928, Kay 간사 213-268-8333

세계는 지금 “완화” 아니면 “진압”으로 대응

이코노미스트, COVID-19와의 전쟁패턴 차이 비교 그리고 대안 제시

지구라는 행성이 섰다운데 들어갔다. 세계 각국이 하나 둘 COVID-19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은 사회를 멀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구제와 대출 보증의 형태로 수조 달러를 지원하려는 중이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글로벌 감염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섰다운데 여러 차례 반복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응방식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다. 아주 어려운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뜻이다(Praying to stop the pandemic: The struggle to save lives and the economy is likely to present agonising choices).

우한에서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된 지 12주 만에 전 세계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인적, 경제적 손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자로 중국 밖 총 155개 나라에서 총 13만4000여 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단 7일 만에 43개국, 9만 건이 증가한 수치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깜짝 놀란 정부들은 수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COVID-19에 발

각국의 전문가들은 예측치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인류의 기역 속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목전에 둔 정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능



확산을 진압하는 것(suppression)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모두 집에 갇혀서 일하고, 학교는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완화가 그래프의 곡선

을 다른 유럽 국가에 적용한다면, 독일과 같은 의료 선진국조차도 역량을 훨씬 웃도는 과제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들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진압”의 경우, 중국의 사례처럼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월 18일 기준,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4천명도 넘게 나왔지만, 우한에서는 한 건도 더 추가되지 않았다. 인구가 1억에 달하는 중국에서 확인된 건수는 총 8만여 건에 그쳤다. 그냥 두면 영국과 미국의 80%가 감염될 거라는 예상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비율이다.

하지만 “진압”의 문제 역시 여기에 있다. 감염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됨을 의미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주님이 부활 후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거기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베라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디베라 바다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득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온 ‘좌절과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일곱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때와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결국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듯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 장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 메시지에만 주력하려고 합니다. 2권 짜리 요한복음 주석을 쓴 크레이크 키너(Craig Keener)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오늘 이 디베라 바다의 밤 이 장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이다.” 그렇다면 디베라 깊은 밤의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 시키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사태를 접하면서 이 디베라 바닷가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의 거대한 힘을 가진 미국도 미생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군사력? 넘치는 경제력? 최첨단 기술? 우주를 넘나드는 과학기술? 역사를 꽃피우는 철학, 사상, 예술? 등등 그동안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큰 소리쳐 왔지 않습니까?(렘9:23-24)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진정 우리의 자랑이 다 한갓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새삼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분명한 자리매김을 즉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바닷가 디베라 바다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 오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대하20:12-13).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같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서서 겸손히, 간절히, 간곡히 땅을 치며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견뎌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대하7:14, 20:9, 시91:2-3).

코로나사태를 겪다보니 일상이 감사였지요? 일상이 축복이었지요?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팔방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얘기하던 그날이 그리웁습니다. 도로에 트레픽이 있던 때가,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날 때가, 가게마다 영화관에 스타디움에 식당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때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없이 만나고 대할 때가, 같이 여행을 계획하고 그날을 기다릴 때가,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맞춰나갈 때가, 그때가 모두 다 그리웁습니다.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일상이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가득히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회개합니다. 일상이 감사요, 일상이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4면으로 계속)

(11면으로 계속)

완화-감염자와 감염기구 격리, 진압-더 폭넓은 조치로 확산 대규모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 투자 등으로 대처해야

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아예 금지했다. 타임스퀘어와 같은 번화가는 텅텅 비어가고 대도시의 카페와 술집, 식당, 스포츠 경기장들도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경제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전년 동기대비 3%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중국의 1, 2월 산업생산량은 실제로 13.5% 감소했고, 4%선으로 예측됐던 소비 감소세는 20.5%로 드러났다. 고정자산투자는 예상의 6배 수준인 24% 감소했다.

가하는 규모의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인류는 감염병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게 됐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연구진은 이번 주, 역학모델을 활용해 정책입안자들이 앞날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전망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첫 번째 접근법은 완화(mitigation)다. 감염자와 감염 기구를 격리해 그래프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더 폭넓은 조치를 취해

을 완만하게 한다면, 진압(suppression)은 병의 확산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그냥 확산되도록 놓아둔다면, 올 여름이 끝날 무렵 미국에서는 220만 명, 영국에서는 50만 명이 사망한다. 선진국에서 “완화”모델을 택할 경우, 이 수치는 최대 절반 정도 줄어든다. 중증 환자치료를 위한 수요는 영국 평균 수치의 최대 8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모델이 계산에 넣지 않은 추가적인 사망자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모델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의 모델에 따르면 COVID-19는 이미 전 세계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수주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바이러스가 돌아올 때마다 진압 작전을 실시하게 되면 한 해의 절반은 봉쇄 상태로 지내게 되는 셈이다. 바이러스가 인구 전체로 퍼지거나, 얼마나 걸릴지 모를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런 식의 온-오프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모델이다.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생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품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mwood Terrace Palisades Park, NY 10765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염, 대장염,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특선 특수검진용 비드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미백(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검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지, 유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 유년,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 877-6642, (704) 529-0900 701 Scalye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 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 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3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 755-1490, 사택 (915) 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535-1842(1),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 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코로나바이러스 19을 접하면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은 거의 매시간 뉴스를 보며 지내리라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시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

하며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안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므로 오

는 여파는 엄청나게 크리라 예상된다.

당장 현금이 줄어들면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 모게지와 50명이 되는 직원들의 생활비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매달 보내는 선교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우리교회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러한 때를 만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행정명령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지내야 하는 그들은 참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너무 큰 것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더욱 안 좋은 소식이다. 이 질병이 아주 오래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시시각각 바로 내 옆에까지 질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사

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온 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마켓의 물건들은 동이 나고 있다. 정말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 사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저 정부가 정해준 예방수칙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위급한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홍해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군사가 쫓아 오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

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홍해를 건널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방법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은 참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다. 바다가 손을 내민다고 갈라지겠는가? 그런데 결과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시나이반도로 들어가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번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고 믿는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는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질병을 해결할 방법을 주셔서 멈추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것을 믿는다. 홍해라는 어려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한숨이 찬 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오늘의 우리의 한숨이 찬 양으로 바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내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육민호 목사

(뉴저지 주수원교회)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남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주눅 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수가성 여인은 28절의 고백처럼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도..." 이처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버려지고, 스스로 피해왔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먼저 말을 전하는 자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떠한 이유로 수가성 여인은 변화하게 된 것일까요?

어제 저녁 9시를 기준으로 뉴저지 지역에도 가급적 집안에 머무를 것과 사업체를 향한 영업정지가 발효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비결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들이치는 막연함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잘 이겨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비결은

- 1.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영문으로 살펴보면 "Had to go" 즉 have to go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연하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함께 영상을 통해 주님

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처럼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즉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속한 문제와 관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줄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도리어 생수를 구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당시 풍습을 들어 물질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당신이 아름답다 더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시간적, 공간적 제한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지라도 현재 우리는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인의 변화된 모습처럼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 2. 참된 영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13-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 자존감이 상실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조율하고 극복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랄 만하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런던의 한 길목통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냐?"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거워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환경에 지

문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 많은 과거와, 많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여전히 곱은 여러 문제들, 비참하고 고고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가성의 이 여인은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씬 없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고단한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이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함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마음 속 간절한 소망에 응답을 하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4: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어 함께 동행하며 참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간구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storyuk@gmail.com

삶의 변화의 비결

요한복음 4장 3-30절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 중에 믿었으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망은 육적이며 세속적인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언급된 소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영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소망을 따라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 신지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야 세상에 속한 질문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에 갈망하던 질

그리스도의 고난은 ...

(1면에서 계속)

인간으로서 누구도 강함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으로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생명질서이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베들레헴의 별빛 아래서 어느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그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 철저히 약하고 어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분의 약함을 보면 왜 그분이 그렇게 약한 자, 곧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밤에 하늘의 복음을 들은 자들도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방위에서 천하고 약한 목자들이 하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질병의 위기 속에서 모두 죽음의 길을 피하려고 대책을 강

구하지만, 주님께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약하고 어린 자, 그대로 묵묵히 끌고가는 길을 따라 즐기게 걸어가고 계신다. 자기 예수께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이집트 행 피난길에 오르신 것도 결국 사순절 기간에 끌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어린아이로서도 이집트 행 피난길 역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난의 여정이었다. 약하고 힘없는 자로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질병의 고난과 고통이 어떤 고난주간에서 보다 확실히 배우야 한다.

그리스도 오래된 기도문 "Anima Christi"(그리스도의 영혼은)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강하게 하소서" 라고...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은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강하게 하소서.

세계는 지금 "완화" ...

(3면에서 계속)

모델이란 가장 좋은 근거를 기반으로 추측을 해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압"을 택했던 중국이 바이러스 재발 없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학자들이 대규모 검사를 실시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놓지 않고도 새로운 감염사례를 초기에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밝혀내고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반

산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새로운 약물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희망에 불과하다. 희망사항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완화"는 너무 많은 사망자를 내고, "진압"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쓰디쓴 진실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평범한 시민들은 격변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반복된 격리와 고립이 인구 전반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각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은 있다.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검사가 출발점이다. 누가 병에 걸렸는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낼 역량을

갖출수록 무차별적인 제재에 의존할 필요가 적어진다. 바이러스 행체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면,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확산에 기여할지 모른다는 우려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된다.

2차 전선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앱을 이용해 완치된 사람을 인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감염을 추적하고 사람들에게 경보를 보내고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다. 영장 없이도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평소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조치였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끝으로 각국 정부는 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그 결실을 보기가 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

도 마찬가지다. 집중치료 역량을 늘려야 한다.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는 병상수와 전문가, 산소호흡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상의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하고, 새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완화"에 따르는 사망율을 낮추고, "진압"이 초래할 비용을 낮추는 길이다.

이런 조치들로 팬데믹의 타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희망에 들떠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정부들이 비용을 불사하고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지 않으면 결국 사망자가 더 발생하더라도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트레이드오프겠지만 곧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예배상실

은퇴를 3년 정도 남겨두신 선배 목사님께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몇 주 동안의 회한이 가득 담긴 편지를 한국에서 보내주셨다. 이곳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안팎으로 커지는 때여서인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었다.

-예배를 전폐하니 몸은 편한데 영혼의 갈급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 놓고 예루살렘 시온산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한 없이 울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생각하며 가슴에 품어본다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가! 성도들과 마주보고 즐겁게 웃으며 정을 나누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그럼에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좀 더 정성껏 헌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마음을 짓누른다네.

모두가 대구를 혐오하지만,

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이면 이웃들에게 돌을 맞아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하늘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할 수도 없게 된 막막한 현실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마땅한 형편이지, 오히려 굳이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터리니성을 말할 때는 아닌 것이다.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배려야 마땅할 것이지, 어떻게 교회 오지 않아도 될 합당한 근거로 교회를 건축물 정도로 비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그 지도층에서부터 썩어빠진 생각으로 위기 앞에 타락의 전조를 드러내 보인다 할 것이다.

예배를 차단하는 괴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서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공황을 예고한다. 한국에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 추단한다. 왜 그런가? IMF를 한국이 극복하면서 신용평가가 등급이 되고, 오히려 경제나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무엇이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였는데, 교회로 와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듣고 아니 듣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금번의 일로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유해한 바이러스로 인해 그 형편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겨진다. 한마디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 면역력부터 먼저 공격하면서, 영적 치료보호소인 교회부터 차단시키는 것을 보면 공격의 강도가 엄청난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열고 부여주시는, 주의 은혜의 빛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예배

코로나바이러스는 영적치료소인 교회를 폐쇄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염병이 지나간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영상예배에 익숙해진 나머지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금번 질병으로 인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쇼'와 강단

교회 강단에 실제 목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대를 생각해 보라. 그냥 동영상이라 5G 데이터에 의한 동영상 이 강단을 장식한다고 생각해 보라. 5G는 교회 영상예배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극적인 화면의 보여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지교회를 세우고, 영상을 송출하여 때로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한 시킨 무대에서,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해서 목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한마디로 '쇼'하는 강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역마다 브랜치로 교회를 두는 유명한 미국 대형 교회에서는 매 예배시간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만들어진다. 멋진 배우의 등장처럼 목사를 등장시키고, 세트장을 꾸미듯 강단을 꾸며 매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절로 아이패드를 꺼내어 그날 '쇼'의 값을 매기듯 헌금을 결정하여 온라인으로 송금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미국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서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종말론적인 징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어느 곳에 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런스 장권사

A: 전염병은 신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는 종말론적인 징조로 나타납니다. 먼저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은 구약에서 약 4번 이상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완악한 바로와 애굽사람에게 내리는데 짐승들에게 돌립병이 돌고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피부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둘째, 민수기 16장 41-46절을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불로 죽임을 당하자 나중에 죽음의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1만4천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셋째,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선지자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하기 위해 악한 꾀를 냅니다. 미인계로 모압여인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늘씬한 여인들과 미인들이 많더니 호기심에 그들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바알브을 우상신에게 같이 절하고 모압여인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지자 하나님이 진노

인간 죄에 대한 심판: 출9장, 민16장, 25장, 삼하24장
종말론적 징조: 계시록에 짐승, 바이러스와 적그리스도

의 심판으로 염병, 전염병을 보내어 2만4천명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넷째, 삼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튼튼해지자 이스라엘 군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요압장군이 반대했으나 감행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윗에게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여 약7만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전염병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며 누가복음 21: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징조로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는 4가지 말이 나옵니다.

4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이 색깔은 청색과 황색의 중간을 말하는데 갓 돌아온 풀이나 곡식의 색깔이며 추한 색깔입니다. 이 색은 전통적으로 공포의 색, 죽음의 색을 말합니다. 계시록 6:8절을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검은 전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은 기근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사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전염성 역병을 말합니다. 70인역에서는 온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흑사병은 과거 AD1327년-1351년에 있었던 괴질인데 중국에서 시작되어 지중해를 통해 유럽전역의 그 당시 유럽인구 1/3을 죽게 했습니다.

짐승은 여기서는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짐승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전염, 침투하여 인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구제역은 소 돼지에게서, 사스는 고양이에서, 에볼라는 박쥐고양이에서, 메르스는 중동 낙타, 에이즈는 원숭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장군은 예루살렘의 인구 110만명을 죽였습니다. 2차 대전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혁명당시 인구의 1/10인 2000만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다 작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기는 길은 질병치유의 유무 없이 반복되는 영적공격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게 만든다. 영적세포들을 파괴시킨 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공격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염병이며 괴질이다. 몸속에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유발하기에 앞서, 성정을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도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도구이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독한 것이다. 이를

이기는 길은 질병치유의 유무에 앞서서, 먼저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인터넷 정보와 뉴스로 무장해제 되지 말아야 한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대신 싸워줄 면역세포를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예배상실이 강제되는 시대

-현장현예배, 가상과 실상, 영적면역력

그래서 대구를 떠나고 싶어 하지만, 이 좋은 오히려 대구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네. 저 악하고 더러운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전 보다 더욱 대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끝이 없다네. 2020.3.20 춘분, 봄이 오는 길목에서.

교회와 예배, 궤변

편지 글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떤 분은 '인터넷 예배'가 있지 않느냐? 라고 대안 입을 제시한다. 또한 분당의 어느 목사는 건물이 교회라 아니라, 꼭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며 인터넷 예배를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물론 궤변에 불과하다.

현실 상황이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해야 마음을 들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정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이 결코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에 염병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주의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한다. 염병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럴 때에 땅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는 염병의 문제와 더불어 이를 치유할 기도의 자리까지 막아버린 그런 절체절명의 위

스런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면에는 IMF의 고통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예배와 간증이 풍성했던 것을 이유로 판단한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곳곳에서 은혜의 힘으로 난세를 이겨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주 악독한 것이다.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니 악한 형편들이 회복될 길이 더 요원해진 것이다. 기도와 예배가 펼쳐지는 교회부터 막아버리니 형편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더 선명해진 것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풀이킬 만한 기도의 귀한 부르짖음을 상실해가는 것이다. 어떻게 집 안방침대에서의 기도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 있겠는가?

교회-영적치료소

최근 어떤 성도님이 삶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자신의 결심을 말한다. '목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려니 하고 꼭 참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대답을 바꾸어 드렸다. '집사님, 꼭 참고 지나가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람 접촉이 힘들어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 사업장에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마켓에 가서서 개의치 않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반방에 가서나 교회 기도를 붙잡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해 교회마다 성전을 폐쇄하고 유튜브 등의 방송시설을 꾸며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결코 온전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에도 영상예배에 익숙해지고 나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러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게 된다.

마치 과거 한국에서 예전에 인신매매가 유행할 때 저녁에 배를 오후예배로 돌리고, 문제가 지나간 후에도 편한 방법을 찾아 저녁이 아닌 오후에 회집을 하였고, 후에는 더 편하도록 오후예배를 오전부터 몇 부 예배로 나뉘어 골라서 형편 따라 한번만 예배드리면 주일성수를 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취약하게 된 주요원인이다.

영상예배에 익숙하다보면 엔터테인먼트 기술에 의해 영적 감각이 둔화될 수 있다. 드라마를 찍을 때 한 장면에서 보통 여덟 컷을 찍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영화는 장면 당 24개의 컷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영화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대사를 찍을 때는 1분짜리를 찍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TV영상으로 볼 때보다 훨씬 못한 것을 경험한다. 그냥 분위기에 취할 따름이지, 선수의 공을 잡았는지 떨어뜨렸는지 그 주변반응과 더불어 볼 따름이다. 이에 비해 TV 중계는 훨씬 더 재미있다.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다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TV프로야구가, 현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반방에 가서나 교회 기도를 붙잡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게 된다.

실상과 가상

이렇게 된다면 과연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앞서서, 좋은 기술 PD를 영입한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어느 교회가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이끌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가상일 따름인데, 가상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정말 참람한 일이다.

이와 같은 타락이 일반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때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는 작은 입맛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다. 코로나비해 영화는 장면 당 24개의 컷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영화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대사를 찍을 때는 1분짜리를 찍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영적면역력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혀 질병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지만 이를 이길 만한 면역세포가 싸워 물리쳐주기에 인간은 건강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차드의 리시(Lisi)

리시(Lisi)는 쿠카족(Kuka), 빌랄라족(Bilala), 메도고족(Medogo) 등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3개 종족집단을 일컫는 통칭이다. 이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결혼도 하고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으며 유사한 전통이 있다. 이들은 차드 북부의 바타현(Batha Prefecture)에 있는 피트리 호수(Fitri), 야오 호수(Hadjer) 주변에 살고 있다. 리시족은 야오 술탄국(Yao sultanate)을 이루던 주요 종족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1400년대에 야오국은 빌랄라족에 의해 건설됐으며 문화



와 언어는 다른 종족과 달라 아랍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빌랄라족은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쿠카족, 메도고족과 섞여 살게 되면서 리시족의 하나로 포함되게 됐다. 그들은 현재 쿠카어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라-바귀르미 언어들(Sara-Baguirmi)을 사용하고 있다. 아랍어도 무역용어로 사용된다. 1600년대에 빌랄라족은 쿠카족을 정복했으며 이들의 땅에 정착했다. 오늘날 그들은 가장 수가 많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종족이 됐다.

삶의 모습

리시족은 주로 농부들로 수, 당밀, 면화, 매니옥(manioc, 녹말을 함유한 큰 뿌

리를 식용으로 하는 관목류)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여자들은 집 근처에 자기만의 땅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채소를 재배해 가족들이 먹거나 시장에 내다판다. 줄꿀(wild rice)과 뿌리, 로커스트 빈(locust beans, 쥐엄나무와 비슷한 carob나무의 꼬투리), 야생열매 등을 피트리 호수 근처의 숲에서 채집하기도 한다.

리시족의 일부는 농사와 함께 목축도 한다. 양과 말, 낙타, 약간의 소를 친다. 남부에 있는 이웃종족과는 달리 리시족은 가축의 젖을 짜서 버터를 만든다. 이런 일은 여자들이 한다. 또 다른 리시족은 소규모의 사냥과 고기잡이를 한다. 남자들이 사냥과 목축을 하고 고기잡이의 대부분을 하며, 여자들은 남자들을 도와 고기잡이와 농사일도 하거나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한다. 그 외에 여자들은 모든 가사를 도맡아서 식사준비, 장작 구해오기, 아이 돌보는 일을 한다. 차드 북부의 전 지역에는 지방 시장이 몇 군데 있다. 남자들은

은 대상행렬을 이뤄 보다 더 큰 지방의 상설시장에 가서 무역을 하며 여자들은 마을 근처의 시골시장에서 간단한 상거래를 한다.

리시족은 밀집된 촌락에서 사는데 촌장의 지도를 받는다. 촌장과 장로들은 마을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시골의 리시족이 사는 집은 진흙벽돌이나 멍석으로 된 벽에 원추 모양의 이엉지붕이 있는 둥근 움막이다. 좀더 큰 마을에서도 진흙벽돌을 쓰지만 지붕이 평평하며 다져진 흙으로 만들어진다. 마을에는 외곽에 울타리가 쳐진 직사각형 구조물로 여러 개 있다. 이 각각에 움막이 여러 개 있어서 대가족이 거주하게 된다.

리시족에게는 일부다처제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슬람법에 따라 4명을 넘는 아내는 가질 수 없다. 첫 아내가 우월한 권위를 가지며 소위 "수석"이 된다. 각 아내는 자신만의 움막을 가지며 그곳에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함께 산다. 리시족의 딸은 결혼 전까지

어머니의 움막에서 살지만 아들은 대개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자기만의 움막을 지어서 따로 산다. 이 무렵에 그는 남자로서의 성인식도 치르게 된다.

신앙

리시족은 100% 무슬림이다. 그들은 이웃의 무슬림인 아랍상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그들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슬람 이전의 일부 관습들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만 이슬람법과 전통이 강하게 영향을 끼쳐 그러한 관습과 결합돼 있다.

이슬람은 5가지 기본적인 가르침(pillars)에 기반한 행위의 종교이다. 무슬림은 "알라가 유일신이며 모하메드가 그의 예언자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라마단(람잔)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며 일생에 한번은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차드의 평균수명은 40-42세에 불과하며 교육률은 약30% 정도다. 리시족은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질적인 보건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아마도 크리스천 교사와 의료사역자들일 것이다.

리시족은 또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라디오방송과 성경, 문서자료와 같은 복음화 도구들이 없다.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는 있지만 진전은 거의 없는 편이며 리시족 대다수는 아직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리시족에게 복음이 효율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일꾼들과 기독교방송, 복음문서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충실하게 중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거리두기 '한 달 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이동제한, 자택격리 등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나섰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72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 4000여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코로나19 사망률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은 6월 1일까지 회복되는 경로에 있을 것이며 많은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부활절까지 미국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정상화 언급이 실수였다는 질문에 "그것은 단지 열망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미국 내 감염병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비판적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오전 CNN 인터뷰에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나는 그가 말한 숫자를 믿지 않는다"며 파우치 소장을 연단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100만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해 그 숫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 따르면 미국의 감염자는 14만 3000여명으로, 일주일 새 4배 이상 치솟았다. 코로나19 핫스팟인 뉴욕주에서는 720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5만 9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곳은 27개 주에 이른다.

미남침례회 연차총회 취소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차 총회를 취소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이후 75년 만에 처음이다.



SBC는 지난 24일 총회 임원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기관의 집행 책임자들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 9-10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총회에선 신임 총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SBC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최대 2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018년 총회장에 선임돼 지난해 연임됐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교회의 JD 그리어 목사의 임기는 1년 더 연장됐다.

그리어 총회장은 "코로나19는 중대한 비상사태"라며 "50명 이상의 모임을 갖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회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SBC는 교회 및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그리어 총회장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 주시는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시대 팔복 "손을 청결하게..."

미국의 한 목회자가 성경의 팔복을 패러디한 '코로나19 팔복'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토마스 M. 슈만 목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코로나19 팔복'에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그의 새로운 팔복은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요"로 시작한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자기격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웃을 도울 것이요. 사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족들을 먹일 것이요. 대피해있는 이웃들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이웃을 맞이할 것이요"로 이어진다.

슈만 목사는 "가정교육법을 공부하는 부모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녀로부터 배울 것이요"라며 가정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에게 드릴 생필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요"라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로 마무리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덟 가지 축복을 의미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도하는 자' '우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한다고 말한다.

미, 1년 예산 절반 코로나부양책으로

미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25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오는 27일쯤 하원에서 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경기부양 법안을 가결했다. 통신은 미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약 4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 달러, 각 주와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가 편성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2500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해당 법안이 제출된 이후 5일 넘게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1시쯤 합의에 도달했다. 미치 매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wartime level of investment)"라며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미래를 되찾을 것이며 상원은 그들이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는 필연"이라며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업보험 강화 내용 등을 표결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직권 임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6일까지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한때 나왔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상원 공화당 법안을 뒤집고 그것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서 '가족 우선' 구제책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美, 백신 인체실험 시작...중은 원숭이서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실험이 시작했다. 중국 연구진은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은 16일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시애틀의 '카이저 퍼머넌트' 보건연구소가 18-55세 건강한 성인 자원자 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단 4명이 백신주사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분량의 백신주사를 두 차례 투여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백신실험의 목적은 우려스러운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메신저RNA-1273'이라고 명명된 이 백신은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바이오테크기업 모데나 세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했다. 임상시험 결과는 7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이 실제 효능이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돼도 일반에 상용화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은 지난 11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하는데 최단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며 "일

반인 대상 실제 점증으로 이어지기까지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약 35곳의 회사와 연구 기관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의학과학원 의학실험동물연구소가 실시한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건강을 회복한 원숭이들에게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원숭이 4마리에게 바이러스를 주입해 감염시켰다. 한 달 후 더이상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숭이 2마리에게 연구진은 또다시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원숭이들은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랐지만 다른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2주 후 원숭이들을 안락사 시키고 부검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항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원숭이들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겠지만, 항체가 확인된 만큼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만큼 참고할 가치가 있는 실험 결과"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재택생활' 의 그림자, 가정폭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에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실외활동이 줄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떤 범죄는 발생율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더욱 부추기는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택 대피 명령이 본격적으로 발동되면서 대도시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가 일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WP는 이날 중순 이후 워싱턴·로스앤젤레스·시카고·애틀랜타·댈러스 등의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많은 도시에서 재산 관련 범죄가 10-20%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은 지난주 흉악범죄가 17%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선 지난 20일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일주일 동안 강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하지만 미국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생활고가 극심해질 경우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강간·학대·근친상간을 막기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헤더 드레브너는 "이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폴 파넬 덴버 경찰청장은 "젊은이들과 다양한 세대들이 같은 가정에 갇혀 많은 스트레스 속에 가까이 지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찰은 코로나19가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경비직에 대해선 구속도 꺼리는 실정이다.

자택 대기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자 유럽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복잡하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묘한 관계로 존속하였으며, 16세기 종교개혁 역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핍박을 피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였다. 교회가 국가의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매우 순수했다.

중세에 들어 서방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잘 전환시켰다. 476년, 기독교 제국이었던 서로마가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다.

800년, 프랑크 왕국 전성기의 통치자였던 샤를마뉴(Charlemagne, 742-814)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받는 일이 일어났다.

혼동 속에 빠졌던 서유럽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962년, 오토 1세(Otto I, 912-973)가 로마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 받은 것이다.

분에 임명하여 교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물론 '신성로마제국'은 과거 '서로마제국'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 황제라는 지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로마교황이 453년에 멸망한 동로마제국을 의식하여 오토 1세에게 유럽의 지배자라는 명예를 선사한 것이다.

그 후로 독일 국왕이 신성로마 황제에 올랐는데, 그 절차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제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과거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입하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다. 군주가 기사들에게 보호를 보장받는 대가로 봉신에게 땅을 제공하는 쌍무적 관계가 생겨났다.

그 결과 각 지방이 분권사회의 형

1499년, 막시밀리안 1세가 스위스 연방과 전쟁에서 패했다. 그 결과 스위스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다. 독일의 제후들이 1500년에 개최된 제국의회에서 황제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박탈하기도 하였다.

중세 로마교회가 지녔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정치적인 것은 물론 엄청난 돈과 토지를 소유했다. 자연적으로 지상명령보다 자신을 채우는 일에 심취한 결과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1309년부터 1377년까지의 70년간의 '아비뇽 유수'가 있다. 로마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 1235-1303)가 프랑스 왕 필립 4세(Phillippe IV, 1269-1314)에 의해 생포되어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한 달 뒤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황청은 로마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아비뇽 유수가 마감되었지만 교황과 관계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탈리아인 우르바노 6세(Urbano VI, 1318-1389)가 교황에 선택되었지만 교회를 장악하던 프랑크 출신 추기경들이 반대하였다.

이 사건을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헝가리 등은 로마교황을 선택하였다. 프랑크, 스코틀랜드와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등은 아비뇽 교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2명의 교황 사이에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대립 교황을 선출하여 결국 3명의 교황이 자신이 정통임을 주장하고 상대를 파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황의 권위가 추락된 상황은 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와 맞물린 민족교회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회 재산과 연관된 사자들 그리고 종교적 문제에 대해 세속 통치자들이 직접 참견하기 시작하였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7)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받은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와 교회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어찌 보면 교회가 국가를 이긴 듯하다.

태로 발전되었다. 상대적으로 군주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로서 신성로마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닌, 제후들의 통치를 받는 여러 연방들이 모여 이룬 연합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제후들의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혁자들이 활동이 가능하였다.

1519년,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카를 5세(Karl V, 1500-1558)가 신성로마제국과 스페인 왕국을 상속 받으며 권좌에 올랐다.

3명의 교황 각축으로 권위 추락, 민족주의와 맞물린 민족교회 형성 가능케 국가적 유의 우선 정책으로 교황청과 갈등 16세기 종교개혁의 길 준비시켜

국왕보다 높은 지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황제는 교황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실제로는 교황이 그를 축복하는 형식의 머리엔 손을 얹었지만 실상 그의 보호가 필요했다.

새로운 힘

중세 말 서유럽은 로마교회와 국가의 밀착 속에서 갈등과 회유가 지속되고 있었다. 힘의 쟁취를 목표로 하는 두 집단 사이에 색다른 힘을 지닌 세력이 등장했다.

구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운동이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493년부터 신성로마제국을 통치 하였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1459-1519)는 막강한 힘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그는 황제 중심의 막강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원하였지만,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지방 제후들이었다. 새로운 힘으로 부상한 제후들은 황제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유지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기였다. 1519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한 뒤 개혁사상이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를 5세는 이탈리아를 두고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Francis I, 1494-1547)와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는 로마교황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민족주의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the Pilot Certificate Program and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리더십 코멘터리 (108)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리더십

질병을 이기는 인류

지구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이라는 전염병으로 난리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 본 바이러스의 모양이 태양의 동근 외곽 불꽃인 코로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작년 연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유행한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동물의 호흡기 속에 머물며 동물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전염병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 나라마다 연일 국가별 감염 환자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감염 이동경로까지 상

와 같이 단계로 생명이 아니다. 놀랍게도 바이러스는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나 성분들이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오직 핵산이라 부르는 유전물질인 DNA 혹은 RNA 작은 조각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 또는 무생물이라 부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얻는 생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바이러스는 우연히 숙주인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면 그 생명체의 세포에 머무러 그 세포를 이용해 자신을 복제하여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든다. 그렇게 자손을 만든다는 점에서 생명체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생물과 무생물

그런데 다윗은 그 재앙의 원인이 '130만 대군' 군인의 숫자를 자랑하고픈 동기로 인구조사를 강행한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인정하고 회개했다. 의학적으로는 그 전염병의 원인이 다르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지만, 다윗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오만으로부터 일어난 재앙이라 통찰하면서 깊은 참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백신을 개발하여 의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장하므로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의 지침을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의 근원에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 관계의 문제이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내리는 지침을 존중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은 지키며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리더십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리더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금식하며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줄 믿는다.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세요

코로나19으로 나라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경을 차단하고 '무기한 봉쇄'라는 극약처방도 잇따릅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세대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요. 후자의 말처럼 혼돈(chaos), 위험(risk), 침몰(sink)이 겹겹이 드리워진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공포와 위기로 짓눌린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봐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길 바라실까?" 소란한 현실을 멀리한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봅시다. 살며시 주님의 성품이 마음의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예레미야 32:41-42).

주님은 시끄러운 오늘의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나라 전체에 '코로나 블루'(blue·우울감)와 같은 사회적 우울현상이 삼시간에 퍼집니다. 우울과 불안, 무기력함,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세상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을 주려고 결심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성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시편 37:4)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의 성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 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성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품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예레미야 33:9).

여전히 우릴 향해 복된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도 세상을 향해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모든 일의 근원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근본적 관계의 문제가 있어 나 자신 먼저 회개하고 온전한 복음과 사랑정신으로 회복되길 기도

세히 공개하면서 이 전염병의 전파를 온 인류가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의학, 과학, 외교, 정치 등을 총동원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인류가 마침내 이런 질병들에 대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과 한 세기 전인 1918-1919년에만 해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5천만-5천만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승리라고 할 만하다.

의 중간쯤 되는 존재, 또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존재인 셈이다.

그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기에 당연히 그 크기가 세포 1개로 이루어진 박테리아의 수십 분의 일밖에 안 되어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존재조차도 몰랐다. 다만 원자는 모르지만 병을 일으키는 존재였기에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의 virus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자현미경 덕분에 바이러스의 모양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원인

다윗왕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 다윗왕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영적 교만함에 있음을 자백하고 선견자 갖의 충고를 받아들여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천사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 재앙을 끝내셨다(삼하24:14-25). 이때의 전염병의 원인은 아마도 당시에 변절한 이름 모를 변종 바이러스나, 중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을 감소시켰던 '페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리더들은 외로운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해외여행이 금지 된 때에, 선교지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복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이 조성되거나,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자. 사람들에게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하자.

하나님께서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리더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능히 극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리더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sondongwon@gmail.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 style="text-align: center;">서부(CA)교회안내</h2>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30(영성)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일분목성(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월-토): 오전 5:30(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인교회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역)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목성: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미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p>	<p>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화전략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찬사-오후 4: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 2. 청소년예배 3. 가정사역 4. 네트워크 사역 사역: 1. 회복상담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안혜사계기도시간: 365일 24시간 모른</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역)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일 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인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수요일: "의성미가 있어주세요"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목회서신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라”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져가면서 국가 기관과 학교와 종교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움직임도 매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필자가 살고 있는 이곳 한 인교회의 목사님들이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아마 이런 일은 세기 가운데 한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일상의 용품들을 갑자기 많이 구입해가는 관계로 대형 마켓들은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실내에 들어가면 먼저 손부터 닦고 있다.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집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회사들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데메지의 수억만배 이상의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은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반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번져 나갈 때 이곳 미국 사람들은 약간 우려는 했지만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찾아오지 않을 것 처럼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에도 천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 미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상황이 실제로 들이닥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많은 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말하였다. 욥이 갑작스럽게 겪은 재앙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욥의 열 자녀를 빼앗아가는 표면적인 공격자는 사탄이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욥에게 찾아온 불행의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욥이 겪었던 재앙의 원인과 결정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 비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상만 볼 수 있다. 현상만 보면 현재 미국의 상황도 정말 불안하다. 불과 열흘전만 하여도 500명 단위였던 확진자의 수가 현재는 5,000명을 넘었다. 미국 전체 52개 주 가운데 텍사스 주 하나만 빠져 나가는데도 자동차로 열두 시간이면 꼬박 걸렸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한 국처럼 살살이 검사를 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소리들이 많다.

들로서 세상이 부패해져가고 세상에 이단이 성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맞으면서 배안에 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덩달아 그 풍랑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나가기를 소원하기에는 오늘 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쳐진 모습이 너무나 면목이 없지 않을가 싶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르고도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한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에도 없는 밤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아주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바르고도 온전한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마음에 없는 활동들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외치고 돌려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큰 이슈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크게 이슈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만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내 가족들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사회 전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슴 벅찬 꿈을 함께 꾸기를 소원해본다.

[정정] 1969호 '목회서신' 필자를 '여승훈 목사'로 정정합니다. 두 분의 필자와 독자들에게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들의 사악한 법안들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들은 악하고 더러운 음모를 늦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기에 모든 크리스천들, 교회, 특별히 교역자들과 학부모, 조부모님들은 경각심을 갖고 치열한 영적전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2월 12일 공고됐으며 결론적으로 이 발의안이 통과돼 법안화 될 경우 일어날 일은 바로 '남자에서 여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relating to access to health services.”

이 발의안의 문제점 1: 시민들의 세금으로 자녀들의 성전환수술에 주정부가 재정보조까지 할 뿐 아니라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위험한 일을 크리스천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크리스천 시민들의 세금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이 발의안의 문제점 2: 이

신장까지 팔았다는 비윤리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Planned Parenthood(PP) 같은 낙태 대기업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한 신청해왔습니다. 이미 Planned Parenthood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CA 주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PP는 여성클리닉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앞장선 로비스트 단체임을 지난 수십년간 거듭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Planned Parenthood(PP)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매년 5만7천3백만 달러를 정부에게 받았지만, Pro-Life(생명존엄)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런 무분별한 낙태 편입을 끊었기 때문에 CA 주정부의 트랜스젠더 재정지지는 더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PP는 친동성애/트랜스젠더 단체로서 이미 Transgender hormone therapy 페이지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은 트랜스젠더 정의 프로젝트 운동단체들 역시 이런 재정지지는 그들이 바라는 바며 이런 단체들과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 LGBTQ Caucus”에서 자신 스스로 이미 동성애자라고 하는 상하원 의원들과의 친분은 눈감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환수술은 어른에게도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통계와 의학적 조사들이 지금 더 많이 나



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성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심대학생들이 성전환을 위한 홀몬주사나 약을 먹겠다는 처방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며, 만일 받고 있다면 하루속히 중지하도록 적극 권면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학교의 세뇌교육(친동성애, 친성전환)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기에, 이런 성전환수술이 의학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해로운 통계도 알려주고, 이들의 연령이 어리기에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신속

히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처럼 뼈아픈 후회를 하기보다는 어른이 된 후(21세 이후, 더 기다릴 수 있으면 25세 이후) 사색의 힘을 가장 많이 주는 두뇌부분의 완성 나이에 결정할 것을 권면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의학적 심리적” 사실들을 잘 아는 크리스천 상담자 또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루속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발의안에 대한 영문 자료들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AB 2218 발의안 법령 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트랜스젠더의 건강, 형평 재정지지, 2019-2020-)



Miguel Santiago(민주당)



Scott Wiener(샌프란시스코와 San Mateo County, 민주당)

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sex change)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결정을 돕기 위해 주정부가 1천5백만 달러 재정보조를 하는 발의안입니다. 또한 수술을 하는 병원, 의사들 역시 성전환수술을 하는데 재정적 지지가 정부로부터 있기에 훨씬 쉽게 수술해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문카피: “An act to add Division 119(commencing with Section 150900) to

발의안 내용 요약

코로나19로 한인교회들 온라인예배 드려

〈1면에서 계속〉
플래시 몹(Flash mob)의 형태와 같이 Prayer Mob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뉴욕교협은 다니엘서 9장19절을 통해 기도 제목을 정했다.

기도제목은 ①주여 들으소서(현실의 위급사태에 대하여) ②주여 용서하소서(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③주여 행하소서(코로나19가 퇴치되고 극복되기 위한 간구) 등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다 떠나갈 썩어다!!” 외침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3월 30일 발표한 뉴욕주 확진자수는 66,497명(뉴욕시 36,221), 사망자수는 1,218명(뉴욕시 790)에 달한다. 뉴저지주는 확진자 16,636명, 사망자 198명.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확진자가 늘어나자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타 주들은 앞의 3개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도 지역 교회들과 함께 매일 오후 9시에 거주지에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남가주 한인교회 상황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자택 대피령으로 법원, 마켓, 은행, 주유소, 언론사 등 특정업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이 자택에 머물게 됐다. 새들백교회(릭워렌 목사) 15개 캠퍼스, 힐송LA(벤 휴스턴 목사), 세퍼드교회(더들리 루터포드 목사), 오아시스교회(줄리안 로우 목사), 처치온더웨이(팀클락 목사), 갈보리체플 코스타메사(브라이언 브로더스 목사) 등 남가주 내 미국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인 교회들 역시 지난 8일부터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선한정지기교회(송병주 목사),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등 한인교회들은 4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바이러스 전파속도와 CDC 권고사항에 맞춰 대처해 나갔다.

LA시와 LA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주일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실시했던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최동진 목사(샌디에고반석장로교회)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실황은 예배당에서 해야 하기에 담당자들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온라인 예배가 3주 이상 지속되면 교인들의 예배에 대해 소홀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됐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는 “온라인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영과 육과 혼을 포함한 전인적 만남이라는 예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됐지만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 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이거나 가택에서 예배에 나오실 수 없었던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예배가 성도로 하여금 더욱 교회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하게 만드는 뜻하지 않은 유익도 생겨난 것은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고통과 염려의 시기에 나성영락교회 교인들은 이웃의 생명 살림에 대한 자발적 사랑실천으로 모든 모임을 금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다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는 “온라인예배가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했다”며 “무엇보다도 평생을 성전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영적 위기감, 사태의 심각성 등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았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모습들이었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나마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분위기”라며 “저 역시도 비어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색하지만, 영상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더 비장함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는 “개인적으로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찬양과 기도인도를 하고 있었음을 더 깨닫게 됐다”며 “성도들의 귀함을 느끼게 됐으며 감사 고백의 시간이 지나 온라인예배에 익숙해지려 하지 말고 예배를 향한 더한 사모함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 윤 목사는 교인들 가운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다며 “교회에서 사역에 분주해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했는데 부부와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며 화내며 비친 목사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였음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불평하지 말아야겠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는 어느 권사님과 여 집사님의 경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으로 옮겨와 남편이 드디어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기독교 대학 수업 온라인 전환

뉴욕 동부개혁장신 4월20일 이후 온라인 준비

폴리신학교(마크래버튼 박사), 아주사피서픽대학교(폴퍼거슨 박사), 미주장신대학교(이상명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박사), 웰드미션대학교(임성진 박사), 에반겔리아 대학교(김성수 박사), 바이올라대학교(배리코리 박사) 등 남가주 신학교 및 기독교대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지난 17일에 열기로 했던 불학기 사경회를 취소했으며 모든 수업과 경건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직원들 역시 4월 19일까지 재택근무로 근무환경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웰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 동안 모든 캠퍼스 수업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4월 10일 이후에 캠퍼스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5층 도서관, 학교체플, 상담소, 학

생카페, 음악연습실 등 교내 모든 기관과 장소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 설교 대회 등 학교 주관 행사들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아주사피서픽대학교는 22일 대학기숙사를, 27일 대학아파트를 닫았으며 기숙사와 아파트 사용자들에게 불학기 말까지 5주간의 사용료를 공제하게 된다.

바이올라대학교는 3월 21일 오후 2시까지 기숙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나갔다. 다만 주거생활과에서 캠퍼스 생활을 허가받은 학생에 한해 지정된 기숙사 내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뉴욕주 공립학교 시행에 맞춰 4월 20일까지 휴교하고 있으며 휴교가 길어질 경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별세

4월 1일 천국환송예배 생방송 진행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원로 손인식 목사(사진)가 3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2세. 지난해 11월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주님 품에 안긴 것이다.

고 손인식 목사는 1948년 12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와 김하비 권사의 차남으로 출생했으며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대 재학 중 군입대했으며 제대 후 워싱턴DC로 이민(1973), Washington Bible College(BA), Capital Bible Seminary(M.Div.)를 졸업했다.

메릴랜드와 미시간에서 각각 전도사(3년), 유학생 교회 담임목사(1년 반), 부목사(7년)로 사역하고 1990년 42세 때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 65세까지 23년

동안 목회했으며 은퇴 후에도 그날까지선교연합 국제대표로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한동포를 위한 복음화 사역을 활발히 펼쳐왔다.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는 “사랑하는 손인식 목사님께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며 “지금의 베델이 있기까지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한 평생을 섬기셨고, 은퇴하신 후에는 ‘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로 북한사역에 정진해 오셨다. 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과 은혜를 입은 수많은 분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천국환송예배는 4월 1일(수) 오후 3시에 갖고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 힘든 상황이었어서 집례를 맡은 김한요 목사와 기도를 맡은 김인식 목사(웨스트힐교회 원로), 그리고 유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환송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으로 손승욱 사모, 아들 세진(며느리 주혜), 딸 수진(사위 최훈), 3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 식료/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시크릿마니모’ ‘리나마켓’ ‘주 글로발(코코넛 워터)’ ‘남가주세누리교회’ ‘문00 집사’ 등 여러 단체, 개인들이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종희 목사는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는 요즘 생업을 이어나가기도 힘들고, 특히 극심한 사재기 현상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 후원을 원하면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후원할 수 있다(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교계 게시판

소망소사이어티 LA사무실 잠정폐쇄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3월 19일(목)부터 4월 15일(수)까지 잠정적으로 LA 지부 사무실 문을 닫는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취소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하는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7342

엘피스패밀리 제3회 힐링캠프 취소

엘피스 패밀리 가정사역원(Elpis Family Ministry, 대표 박운송 목사)은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예정됐던 힐링캠프를 COVID19으로 전면 취소했다. 엘피스패밀리의 임원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온라인 그룹 미팅을 통해 큐티와 중보기도 모임을 지속해가며 기도하고 있다. 다음 힐링캠프 일정은 추후 결정한다.

▲문의: (213)700-9928 박운송 목사, (213)268-8333 Kay 간사

뉴욕교협, 온라인예배와 미디어활용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이 3월 26일 교협건물 2층에서 예정대로 온라인예배와 미디어 활용 세미나를 열었다. 뉴욕주의 10인 이상 모임 자체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5명의 신청자만 선착순으로 받아 분석진 목사(씨존 대표)를 강사로 진행했다.

문석진 목사(뉴욕교협 미디어어분과위원장)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현과 온라인예배의 필요성 대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점과 단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 가이드(가정, 교회) △질문 및 답변 등 5개 분야로 나눠 강의를 진행했다.

문 목사는 온라인예배는 스마트폰 중계 △노트북 중계 △카메라와 기존방송장비를 이용해 중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비메오 등이 있는데 그 중 네이버 밴드는 카톡에 비해 화질이 뛰어나고 관

리기능이 양호하다.

문 목사는 “페이스 북(Facebook)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바로 시작이 가능(인지를 넓히기 유용)하나 유저들이 오래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유튜브(YouTube Live)는 공유주소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설치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오래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비교했다.

문 목사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소개를 적극 추천했다. “유튜브 라이브(You Tube Live)는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거나 또는 24시간 이전 가입 및 확인 후 가능하다. 또한 방법에 관계없이 온라인예배에서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핀 마이크(유선, 무선) 사용을 추천했다.

한편 온라인 예배와 방송을 원하는 교회는 뉴욕기독교방송에 연락하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캠퍼카드와 OBS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설치의 필요시 교회에서 교육 및 셋팅 서비스도 가능하다.

▲문의:(718)414-4848(CBSN)

한인센서스연합단체(KACC 2020) 발족

한미연합회(KACLA)는 한인회(KAFLA), 한인청소년회관(KYCC), 한인타운 노동상담소(KIWA), 민족학교(KRC), 샌프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KACF-SF)과 함께 2020년 한인센서스연합단체(KACC 2020)를 발족했다.

한인센서스연합단체를 구성하는 6개 비영리단체는 한인 사회의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한인 센서스 참여율을 높여 앞으로 10년간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게 된다.

KACC 2020 관계자는 “현재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인구조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my2020census.gov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시간도 1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ACC 2020는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센서스 인구조사를 알리기 위해 센서스 안내 비디오 및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인 1세대에게 잘

알려진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 씨를 섭외해 “투머치토커 박찬호: 미주 한인여러분,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광고(https://youtu.be/pF384G0hgga)를 촬영했다.

모든 가구에 지난 20일까지 센서스국 우편안내문이 배송됐으며, 우편물에 적힌 센서스 아이디(unique ID)를 사용해 인구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가 불가한 자들은 844-202-0274(#4 한국어)를 걸어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병원 및 의료, 교육, 도로 정비,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배분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편 온라인이나 전화로 작성하실 수 없는 자들은 4월 8일부터 16일 사이 종이 설문지가 배송되며, 센서스국 우편물을 기다렸다 종이 설문지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문의: (844)202-0274(#4 한국어) (기사제공: 한인센서스연합단체(KACC 2020))

CGNTV 개국15주년 “땅 끝의 증인들”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아 선교사의 사역을 담아낸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을 방송한다. 총 3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역지에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삶이 그려진다.

첫 번째로 지난 29일과 31일에는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사

역을 하는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의 사역이 소개됐다. 방송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12일(주일)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바나야투로 간 사나이-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4월 26일(주일)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시청은 △IPTV: KT Olleh tv ch.237번, SK B tv 302번, LG U+tv 271번 △케이블: D'LIVE 304번, LG헬로비전 322번, gcs 푸른방송 ch.159번, 현대HCN ch.550번 △모바일 앱 : CGNTV LIVE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lobalcgn).

(기사제공: CGNTV)



인/터/뷰

이남수 목사(하와이행복한교회)

실시간 동영상예배를 인도하며...
유튜브 이용 아들 도움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치솟는 확진자 수는 단 며칠 사이에 온 국민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트럼프대통령의 특별행정명령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의 발목을 잡았다. 큰 교회들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자연스럽게 동영상예배로 대치가 되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내에선 청정지역으로 생각하는 하와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주일 서둘러 동영상 실시간예배로 대체한 교회도 있고 부득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곳도 없지 않다. 본지는 하와이행복한교회 이남수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았다.

하와이 행복한 교회의 담임 이남수 목사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교인 없는 빈 예배당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세상이 아무리 COVID-19 바이러스로 소란스러울지라도 자신의 교회 정도의 규모라면 현장예배를 준수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청정지역이라는 하와이마저도 COVID-19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10명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던 지난 15일 주일날, 예배를 잘 마치고 뉴스를 지켜보던 이남수 목사는 갈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월요일 중직자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바로 있을 수요일에 모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 주일(22일) 예배였다. 주일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뉴스로만 전해 듣던 온라인예배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인데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막막했다.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실시간 예배 방송에 관한 방법을 열심히 검색해봤다. 그러나 이 목사의 실력으로는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고 또 엄두조차 나질 않았다. 그는 급히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목사의 아들은 녹화예배가 아닌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온라인예배를 추천했다. 기존 교회에 있는 방송실 컴퓨터와 오디오 믹서는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비디오 카메라(\$250)와

HDMI Capture Card(\$150)만 새로 구입하면 된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OBS Program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이 공짜 프로그램(OBS PROGRAM)만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어



떤 교회라도 돈 드리지 않고 훌륭한 실시간 온라인예배가 가능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목사 역시 처음 시도하는 이 예배를 과연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칠 않았다. 그는 주일 전날인 토요일 예행 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이 목사가 카메라 앞에 서고 아들은 방송실에서 이것저것을 만지다가 큐사인을 보낸다. 설교를

의 조연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방송종이야 일도 아니겠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생방송이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예배를 위해 피아노 반주자나 찬양 팀 역시 함께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교인들에게는 미리 편지로, 메신저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광고했다. 그리고 주일 당일 또 다시, 예배 시작 10분 전

“하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애썼던 목사와 온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거야....”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아들의 큐사인을 받고 열심히 설교해 보는데 컷 소리가 난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분주히 손을 놀리며 이것저것을 만지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기를 약 20분을 반복했던 것 같다.

대형교회에는 전문 기술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

에 단체 카톡방으로 접속할 사이트를 알리며 기도로 준비시켰다.

그리고 주일 아침 정각 11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접속이 15명, 그리고 차츰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50여명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 예배 순서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발 중간에 별 탈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했다.

찬송과 찬양은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목사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인터넷 동영상상을 이용했다. 목사의 얼굴만 단독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파워 포인트 내용을 삽입해 보여주도록 했다. 긴장하며 불안하며 초조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 교인들에게 위로와 감사, 그리고 너무 좋았다는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몇 교인들은 울면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고백을 해주기도 했다.

이 목사는 온라인예배가 끝난 후 녹화된 예배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사실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감도 생겼다. “처음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애썼던 목사와 온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거야....” 이 목사는 더 많은 기도와 함께 수요일에도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자 기자)

투/고/칼/럼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목사)

보호막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한 일반적 대책을 잘 아시고 잘 지키셔서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좋은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시면 서로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망의 생각들은 서로가 차단하여 우리 심령이 약하여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럴 때 사망의 생각들이 더불어 활발하게 다니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해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성도의 심령에 어둠의 그늘이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인 도움도 있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을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여주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사망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 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여 마음에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 8장, 9장 기록을 보면 애굽 전역에 돌림병으로 약종으로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사망하게 하는 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은혜의 힘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을 물리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어서 사망의 그늘이 덮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친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어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적 사망의 그늘이 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서 생명의 말을 하여 사망의 생각의 흐름들을 막아주어야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이때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투/고

최초의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기덕 권사
(남가주든든한교회)

감사의 내공을 키우는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이번 COVID-19로 사회적 거리를 넘어 각자가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리는 순간 첫 찬송 “다 찬양하여라”를 부르며, 감격인지, 허탄함인지의 눈물이 나서 겨우 찬송을 마치고, 첫 유튜브 예배를 올리는 내 모습을 동영상상으로 찍어 보았다. 신실하게 드리는 첫 예배를 조속하게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는 일일감사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로 1707번째 일일

감사노트를 기록하며 감사의 내공을 쌓게 하여주시는 감사한다. 지난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면서, 1번 도로로 내려와 2월 26일 이곳 LA에 오니 마스크 대란에 여겨지거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나” 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다. 그 누가 이렇게 전 세계를 정지시켜 잠잠케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

나 금권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려던 오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악행을 잡으실 것임에 감사하고, 전 세계에서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걱정을 덜어 밝히 드러나게 하사 이단에 빠졌던 가족이 자기들이 어떻게 속았음을 알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심 감사하고, 국가들은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하게 하심 감사하고, 한국은 정치와 별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대처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교회는 내 맘대로 오고 가고 시간조절을 하던 모습을 경건으로 바꾸시고, 성전예배를 그림고 갈망하게 하심과, 누구 때문에 상처로 맘 아픔도 화해와 그리움으로 바꾸실 것에 감사하

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리모델링”(사업을 얼마나 방만하게 했던가?)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였고,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을 재인식케 하시고 하숙집처럼 잠만 자고 떠다니던 시간을 멈추고, 가족과의 대화와 따뜻한 주심 감사한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영적면역력, 성숙함을 훈련케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이 COVID-19를 잠잠케 하시며, 이전과 이후에 더욱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잠잠히 있으라 하는 시간에 말씀, 기도와 매일 각자의 감사함을 카톡에 연락과 함께 나누면 어떻게! 근거 없는 글이나, 동영상상을 전달하기보다 서로의 감사를 나누자.

집에서 드린 첫 인터넷 예배

Feona Hong 집사
(새누리교회)

오늘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못 갔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다. 나는 자주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감정은 확연히 다르다.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첫 인터넷 예배여서 그런지 어제 밤부터 뭇지 이상한 맘이 가득했다.

평소에는 남편과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출근을 한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8시에 TV 앞에 앉았다. 찬양팀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 모두 다

를 것 없는 예배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를 맘 한편의 잔함이 들었다.

아프다. 세상이 아프듯 내 맘도 아프다. 늘 주일 아침이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가던 교회를 못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늘 보던 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허함이 가슴으로 파고 든다. 아주 당연한 일상을 할 수 없는 불편함 또한 내 삶을, 내 맘을 누르고 있다.

오늘 집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아주 가끔은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습관처럼 교회를 향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하

나님 앞에 비취진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다. 평범한 일상들을 감사함 없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건 나만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준비...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교회를 갈 수 없음이 한없이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인터넷예배를 드릴 수 있음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문을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를 당했지만, 이런 문명을 통해 어쩌면 더 예배는 멀리 넓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하루속히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

안해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란 생각이 간절하다.

한편 교계에 당면한 현실도 보게 된다. 큰 교회들은 인터넷예배가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 또한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시설이 안 된 교회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각 교회의 실시간 동영상상이 도움이 되었을 좋겠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맘속에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교계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것이란 생각된다. 야니,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끝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연약한 두 손을 모은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론

(3면에서 계속)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확

신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

자들 그리고 정부관계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정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잘

견디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모두어 주옵소서! 아멘.

“디베라 바다 깊은 밤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pastor.eun@gmail.com

“신천지는 반사회 단체...법인 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강경 조치... “종교자유 벗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선교사단법인 '새하늘 새망'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새하늘 새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시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새하늘 새망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령·정관에 적시된 법인의 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아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단체는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를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히 몰아붙였다. 그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

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라며 "다른 종교를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법인 취소한 새하늘새망 역시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고 실질적 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모략전도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아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는 전도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 언론, 대학교 명이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 실체를 모르는 시민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장 프로그램을 사칭해 신도를 모은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최근 행정조사과정에서 신천지 '추수꾼(위장 포교자)'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접수했다"며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교회 교인 등을 포섭하기 위해 법인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달라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천지가 밝힌 '서울시가 법인 취소 시 소송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일축했다. 또다른 신천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국제교류'가 아닌 신천지 위법 포교활동 해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립 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가 앞으로 어떤 사단·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법인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서울시 법인 취소로 신천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본체 격인 비법인 비영리단체 '신천지'는 법인 취소여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에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경 경기침체에 교단들도 긴축 돌입

예장합동 예산20% 삭감...기하성 5월 정기총회 축소개최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외출 기피 현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맞았다. 2분기를 앞두고 교단 운영에 박자를 가해야 할 각 교단 총회 본부도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은 총회 본부, 각 상비부, 위원회 등의 예산을 20% 삭감하기로 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중순 이후 예정됐던 각 부서 회의가 80% 이상 취소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오는 5월 예정인 정기총회를 실행위원들만 모여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목사 고시도 모아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19일 개최 예정이던 교단 개척을 위한 '2020-2030 미래정책 선포대회'를 5월 12일로 연기했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제18회 전국 목사·장로 부부 특별기도회'를 잠정 연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동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는 3-4일간 진행하던 각 지방 연회 일정을 하루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윤재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도 총회 실행위원회와 교단 소속 대다수 지방회(노회) 월례회 등 각종 교단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업무의 온라인화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총회 관련 홍보물과 안내문 등은 우편 대신 SNS로 노획과 교회에 전달한다. 기감은 선교사 집금심사를 총회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SNS로 진행하고 있다. 한 교단 관계자는 "재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다수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기도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예장백석은 사순절 기간 매일 정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다.

미중유의 비상사국으로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단이 앞장서 산하 교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단 행사 실무자들은 "행정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절약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단이 그동안 비축해 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국교회 압박, 정 총리는 사과하라”

예장합동·한교총·한교연 등 교계, 비판 성명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일제히 비판하며 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장로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발언한 '교회집회 금지'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등은 매우 위협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예장합동은 "정부 당국이 기독교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범죄 집단이라고 되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를 교회를 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격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국이 지금의 입장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총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전국 6만여 교회 중 집단 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10여건 이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실제 감염 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정통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차별적 참여'와 '불편 감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며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이날 "한국교회에 대해 억압과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교연은 "국무총리가 특별담화에서 '교회 폐쇄, 예배 금지, 구상권 청구' 등의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며 "이는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등검시켜 매도한 행위이자 목과할 수 없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신앙 행위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회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 신도 무더기 확진

확진자 포함 70여명 20주년 행사 참석

29일 오후 현재 최소 2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이재록)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이자 사이비로 경계하는 집단이었다. 이단 전문가들은 여신도를 삼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된 교주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를 한국교회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민중앙교회에 감염자가 속출한 것은 지난 25일 신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까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부터다. 이후 A씨와 함께 일한 동료와 교회 직원, 직원의 가족도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생 감염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고 했으나 최근 온라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200명 이상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신도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전남지역 감염자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는 정통 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단적 설교 때문에 1990년 5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최초로 이단에 규정됐다. 1999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폭행해 구속된 교주 이재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단에 지정됐다. 2000년 예장합동에선 '참석 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2009년 예장고신에서 이단으로 결정됐다. 2014년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예의주사' 결정이 내려졌다.

1943년 무안에서 태어난 이재록은 82년 서울 구로에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했다. 이단 지정 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를 만들어 스스로 총회장에 취임했다.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도 맡았다. 그는 '만민교회' '만민성결교회'란 이름으로 다수의 지교회를 세워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교세를 확장했다. 이재록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20대 여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이재록의 딸 이수진이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일부 신도는 1999년 5월 MBC 'PD수첩'에서 이재록 관련 의혹을 방송하자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해 방송까지 중단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만민중앙교회는 직통 계시와 대언, 신격화로 이재록을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집단"이라며 "심지어 이재록은 죽음을 피해 가는 권세, 죽고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코로나9 감염이 집중됐던 것은 거짓말과 육체영생이라는 특유의 교리 때문에 감염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민중앙교회도 무안 성지 방문 등 종교적 의무가 많다 보니 신도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로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이재록은 한낱 성범죄자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와 만민중앙교회를 동일시해선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몽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84, www.fk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637-147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권영), (917)373-3411</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www.cpcofny.org, Tel: (516)387-8940, 8942(E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www.kapcc.org</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인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p>	<h4>하와이 행복한국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신교사: 임한근 선교사 Tel: (52)333-3507-4111, hanimkr@hanmail.net</p>

선교의 창 (143)



송종록 목사 (크리스천교전학 연구소)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취해야 할 태도

Covid19이 에피데믹(epidemic) 수준을 넘어 팬데믹(pandemic)이 되었다. CoronaBoard 통계에 의하면 오늘 3월 31일자로 세계의 205개 나라에 확진자 수가 80만 명과 사망자 4만 명을 넘었다. 미국은 환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기까지 8일밖에 안 걸렸다. 전염속도가 놀랍다. 확진자 가운데는 영국의 왕위서열 1위인 찰스 황태자와 존슨 수상,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캐나다의 영부인 소피 그레그와르 여사 등도 있다. 이렇게 인명피해 외에 사회전반은 어떠한가? 이 사태로 말미암아 189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이 처음으로 연기되었다.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자리 잡은 라스베이거스 역시 셔다운(Shutdown)되었다.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 때도 끄덕없었으나 이번 일로 115년 만에 문을 닫고 유명 도시로 변한 것이다.

도대체 이 병마의 끝은 어디까지 일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지금 이런 난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무튼 나라들이 앞 다투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무고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거주이동이 제한된 채 방콕상태에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리적 불안감과 생활상의 중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크리스천들의 생활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4종류의 인간실상들

사람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으나 환난의 때가 되면 진면목을 보게 된다. 대체로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너

하되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살피게 된다. 이러한 부류는 내가 우선이며 이웃은 하나의 도덕적 선행에 불과하다.

넷째는 “나 죽고 너 살자” 철학의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된다. 이들은 세상을 육안과 영안으로 통찰하며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산다. 인간 실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좋은 예가 있다.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 제작된 타이타닉(Titanic) 영화이다. 그 실상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한자인가?

2. 빌 게이츠(Bill Gates)가 Covid19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컴퓨터의 황제로 불리우는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14가지 교훈을 말했다. 이 항목 중 상당수는 우리가 새겨 붙만하다. 1)문화, 종교, 직업,

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음식, 물, 약 등 필수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6)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7)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8)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준다. 9)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10)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나 당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11)이것이 끝이거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12)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13)모든 어려움 후에는 항상 여유가 있음을 기억한다. 14)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에 있다”고 했다.

그간 우리는 바빠 사느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지 못했다. 예배 중에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QT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책한 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성경과 경건서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둘째, 환경정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깥 세상위주로 살다 보니 집안은 어지럽고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컴퓨터, 서랍, 옷장, 냉장고, 거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13)모든 어려움 후에는 항상 여유가 있음을 기억한다. 14)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셋째,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한인 가정은 너무 삭막하다.

보는 것이다. “내 코가 3(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란 말인가?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코가 4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록 제한된 방콕생활이지만 문명의 이기(利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화, 문자, 편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역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먼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맺음 말

2020년 초기는 Covid19이 파죽지세로 세상을 뒤집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 사태를 큰 재난으로 여기면서 한편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과 지구촌을 위한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있다. 그의 지적 14가지는 일리가 있다. 그간 우리 인간세계는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어왔다. 생태계가 병들고 인간들도 지쳐 있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불문율은 꼭 동물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가 주장했던 “너를 통해 진정한 내가 된다”라는 인류 공동체적 나눔이 얼마나 있었는가?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큰 문제였다. 이제라도 인류는 절대자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이웃과 함께 더 낫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두운 터널은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 이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한다. 창조적 소수들은 파도에 결코 휩몰리지 않는다.

jsong007@hanmail.net

어두운 터널은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창조적 소수는 세파에 함몰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타고 비상한다.

죽고 나 살자” 철학의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인제공자를 원망하며 자기만 살아 보겠다고 안달이다. 매우 냉혈적이며 이웃은 조금지도 안중에 없다. 둘째는 “너 죽고 나 죽자” 철학의 체념적인 사람들이다. 불안 속에서 그저 “필 대로 되라”는 식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도 없고 이웃도 없다. 일엽편주(一葉片舟) 즉, 풍랑 앞에 선 하나의 잎사귀 같은 조각배처럼 인생을 세류에 맡기고 산다. 셋째는 “나 살고 너 살자” 철학의 인간적인 사람들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우선으로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2)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3)영양소가 불량한 제조식품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치해 왔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4)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5)어려

운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다.

3. 방콕시대에 가정에서 해야 할 3가지

지금 우리 대다수는 방콕 상태에 있다. ‘방콕’이란 방에 콕 박혀 있다는 속어이다. 이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생활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다. 존 칼빈(John Calvin)은 그의 첫 번 요리문답서에서 “참된 경건은 그 분에게 죄를 범

가족끼리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식당, 문화공연, 여행 등은 주로 교회나 학교, 직장 친구들과 간다. 가족은 늘 뒷전이고 찬밥이다. 한 상에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며 설사 집에 있다 해도 각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이버 세계에 심취해 있다. 우리가 정통과 유대인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외부인들과 수평문화를 차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가정들은 많이 회복될 것이다.

넷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



드라마 서신서 (3)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철수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후에 홀로 예루살렘교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반드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바울의 전략과 의지가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알렉산드리아(이집트 북단의 유명한 대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블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행18:24-28). 아블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블로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힘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양성하여 고린도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블로는 고린도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고, 바울은 예루살렘교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하여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행18:22) 3차 선교여행을 떠나(행18:23)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행19:1). 이런 사건이 동시

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블로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의 이유는 아마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린도교회에서의 사역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고린도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만연되어있던 문제들을 편지에 적어서(고전7:1) 스테바나, 브르나도, 아가이오(고전16:17) 이 세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고전1:1). 교회 안에서 ‘바울편, 아블로편, 베드로편, 그리스도편’ 등으로 파벌이 나눠졌나(고전1:12)고 들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라고 들었습니다(고전1:13). 나 바울은 그리스도, 가이오, 스테바나 가족 정도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왜 세례 문제 때문에 파벌이 생겼는지 안타깝습니다(고전1:14).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고전1:17).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있다고 말하는 헬라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실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고전1:18), 하나님의 지혜(고전1:24)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전2:2).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루고 있으니, 당신들에게는 내가 아주 쉽게 말해주었습니다(고전3:1). 바울과, 아블로와 등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들로서 각자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루어가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복음의 씨앗을 받은 밭이고, 하나님의 집(성전)입니다(고전3:6-9). 그러니 성전된 당신들 안에는 아블로나 바울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시여 되지 않겠습니까?(고전3:16). 성전된 당신들은 사람(바울, 아블로, 게바 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고전3:23).

그러니 제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일 뿐입니다!(고전4:1-2)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대

고린도전서: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

교회안 당파, 음행, 송사, 우상숭배, 덕 세우기 등 권면

하듯 하는 말입니다(고전4:14). 이번 일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으니,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고전4:17).

그리고 내가 들으니, 교회 안에서 당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과 범법 송사의 문제들(고전 5-6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회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고전5:1-2). 왜냐하면 누룩이 새 반죽덩어리에 들어오면 거기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고전5:7), 죄가 교회에 퍼지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고전5:11-13).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세요. 교회 안

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합니까?(고전 6:11)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고전6:2)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 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고전6:7)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어서 보낸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고전7:1). 결혼에 대하여서는 ‘독신’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전7:1-2, 8-9).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전8:8). 다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보고 시험을 든다면 먹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고전8:9). 만일 내가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 일로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고전8:13).

사도들의 권리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며 교회가 섬기는 것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땅을 씌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우리 사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고전 9:4-10). 사도들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닙니다(고전9:11). 그러나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오행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고전9:15).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전10:7). 어려운 일과 시험을 당했을 때도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

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10:13-14).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머리는 남성이며, 남성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고전 11:3).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고전11:11-12).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선물로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함입니다(고전12:4-7).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십니다(고전12:8-11).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고전12:12-30).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말해줄까요?(고전12:31)

가장 큰 은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고전13장).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고전13:1-2). 사랑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고전13:4-6).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고전13:13). 그 사랑으로 하는 방언과 예언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고전 14:1), 방언과 예언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고전14:3-5).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고전 15:3-4).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고전15:22). 그러므로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고전15:55-58).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전16:1-4).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고전16:21-24).

dsukim@gmail.com

채플린 임상목회 (38)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두려움

몇해전 미국과 전 세계가 소위 모기지 사태로 수많은 주택들이 차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며 대량 실업과 파산 등의 경기 침체를 겪었던 악몽과 같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추후 미국을 이끌던 지식인과 언론들은 그 원인을 한 마디로 인간의 탐욕이 자초한 재앙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과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휴가나 집수리, 학자금 등을 위해 먼저 대출을 권유하며 유혹하기 시작했고 대출실적이 높을수록 두둑한 보너스를 받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엄격한 심사 없이 자금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유혹이나 허영심을 자극받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겁도 없이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 결과는 개인파산이나 주택차압에 그치지 않고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돈을 송배하고 쾌락과 탐욕에 빠진 인간의 죄가 자초한 재앙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와 진화를 거듭하며 사스, 메르스에 이어 COVID-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역병 사태를 맞고 있다. UN의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권위 있는 질병관리센터들은 이번 사태를 중세의 흑사병이나 100여 년전 1918년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무려 5,5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악성 독감사태에 견줄만한 대 전염병 사태 (Pandemic)로 선언하였다. 미국만 해도 전체 인구인 3억3천만 명의 약 40-70%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년 안에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파급되는 여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자랑했던 미국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생필품 사재기와 같은 수치스러운 행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필자는 달라스 북동부의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병상수가 300여 개 되는 중형병원에서 채플린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미 한 달여 전에 중환자실의 6개 방과 응급실의 6개 방을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유사환자나 확진환자를 위한 음압실로 개조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문을 제외한 모든 병원 출입문을 차단하고 병원을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와 직원들의 체온검사와 증세, 소속과 방문목적 등을 기록하고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검사는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방호복과 마스크와 같은 필수 보급품 확보에 애쓰고 있지만 주 정부 내에서 다른 도시나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한된 인공호흡기 때문에 예정된 병상이 다 차면 결국 다른 더 큰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 독감이나 폐렴환자들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확보한 검사 키트가 넉넉지 않아서 환자들이 몰려올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환자들이나 진료스태프들의 얼굴에서 피로함과 두려움의 그늘을 보게 된다. 채플린들 역시 대개 60대 이상 노령층이라 육신의 피로와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스태프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역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말씀은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두려움에 떠는 심령들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체험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31:6).

tdspark@gmail.com

웨이스 선교회 세계 가정기도운동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네팔, 과테말라, 콜롬비아

뉴욕에 본부를 둔 웨이스 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 중점지역인 세계 가정기도운동 및 선교지역이 COVID-19으로 인해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3월에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표어를 내걸고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됐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정현 선교사) 3월 가정기도회는 17일 월드미션교회에서 사라 자메의 찬양 인도로 시작돼 디스마스 코그마스 전도사가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는 위대한 군사"(시68:11; 렘31:2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합심기도의 시간에는 1.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2. 웨이스 선교회 세계 가정기도회 활성화 3. 웨이스 선교회 회장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들의 헌신을 4. 탄자니아 땅에 비가 멈춰서 경기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줄도록 5. 정현 선교사님 다리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현재 탄자니아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명으로 확인됐으며, 탄자니아는 의료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2지역(조정연 선교사) 3월 가정기도회는 9일 엘까르멘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손강국 선교사가 사도행전 12장 1-17절을 본문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위한 기도 2.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3.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4.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엘살바도르 엘까르멘 순복음교회는 개척한지 7개월 되는 천막교회인데 그동안 기도했던 교회 건축부지를 구입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을 격리 시설에서 30일간 지내야하며 집회모임 숫자도 75명에서 50명으로 제한해 점차적으로 예배모임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해왔다.

△네팔(새빛들이 선교사) 가정기도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번장교회에서 진행됐다.

예베인도 및 설교는 서산다 선교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4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멸 2. 신앙생활 진보를 위하여 3. 여성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4. 웨이스 선교회 세계가정기도운동이 확산되도록 5. 웨이스 선교회 회장 이사장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박윤정 선교사) 3월 가정기도회는 7일 사랑의이삭교회에서 진행됐다. 3월 예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통령 대국민 발표(3월16일)전이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다. 기도제목은 가정과 자녀의 건강과 과테말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계에 확산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하여 기도했다.

한편 과테말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명이며 3월 16일부터 부활절까지 국경폐쇄, 공공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행사금지, 과테말라 전국의 교통수단 운행금지, 종교행사 스포츠 사회문화 행사금지, 외국인 입국금지, 식사는 배달만 가능하다. 3월 21일에는 모든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통령 대국민 발표내용이 있었다.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3월 가정기도회는 6일 아구아피다 바울선교회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네팔



콜롬비아

에서 진행됐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제로 디멜사 전도사 인도로 그룹별 성경공부를 4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사가야 43:4, 시편 138:8, 139:5-13, 예레미야 1:5를 함께 연구하며 우리각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이 큰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야함을 깨우쳤다.

그룹공부 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특히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도 어머니를 따라와 말씀 공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백마디 말보다 더 귀한 영적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했다.

콜롬비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102명이며 3월 20일부터 23일 자정까지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일부터 10명 정도 모임만 허락하고 있다.

웨이스 선교회의 세계 가정기도운동은 위의 5개 지역 외에 엘살바도르1(황은숙 선교사), 파라과이(이명화 선교사), 일본(황주네 선교사) 등 8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대구어머니 기도회(신동숙 원장), 캐나다 어머니기도회(서은주 목사)와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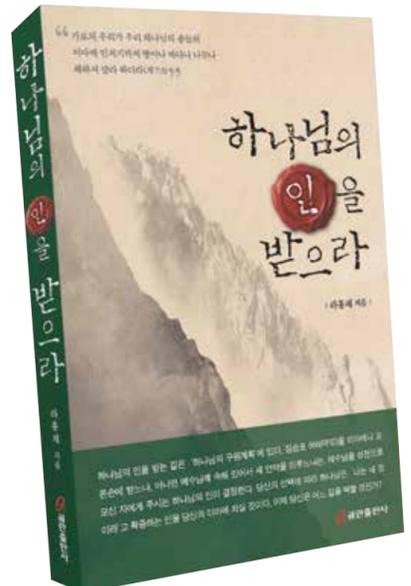
(기사제공: 웨이스 선교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영어로 보는 성경 (5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Philemon 1:4-7

4) I always thank my God as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5) because I hear about your love for all his holy people and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6) I pray that your partnership with us in the faith may be effective in deepening your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we share for the sake of Christ. 7) Your love has given me great joy and encouragement, because you, brother, have refreshed the hearts of the Lord's people.

(NIV 2011)

WORD & IDIOM

* partnership: 협력 * effective: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 effective in ~: ~을(를) 함에 있어서 deepen: (감정, 느낌 등이) 깊어지다 *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 encouragement: 격려 * refresh: 새롭게 하다

GRAMMAR

4) I always thank my God as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나는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가운데

5) because I hear about your love for all his holy people
 왜냐하면 내가 듣기 때문이다 너의 사랑에 대하여 모든 그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and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그리고(와, 과) 너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 나는 (나의) 기도가운데 (내

가) 너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모든 그분(주님)의 백성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하여 듣기 때문이다.

* <I always thank my God>는 <주어+동사+목적어>의 3형식 문장이다. 3형식에 쓰이는 동사다음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을, 를>로 해석을 하지만 동사의 성격에 따라 <-에게, -와, -안으로> 등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thank>는 <-에게>로 해석한다.

6) I pray that your partnership with us in the faith
 나는 기도 한다 (that ~)를 너의 협조 우리와의 믿음 안에서의
 may be effective in deepening your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in ~)에 효과가 있게 되기를 너의 이해가 더욱 깊어짐 모든 좋은 것에 대한

we share for the sake of Christ.
 우리가 나누다(나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너희 협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누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너희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 <I pray that A may ~>는 <나는 A가 ~ 하도록(되도록) 기도하다>라는 기본 틀이다. <that ... of every good thing>에서 A가 되는 주어는 <your partnership>이다. <every good thing>과 <we shar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7) Your love has given me great joy and encouragement,
 너의 사랑이 나에게 주었다 큰 기쁨과 격려(를)
 because you, brother, have refreshed
 왜냐하면 (you 이하)때문이다 네가 형제 새롭게 하였다

the hearts of the Lord's people.
 주의 백성의 마음을 ⇒ 너의 사랑이 나에게 큰 기쁨과 격려를 주었다, 왜냐하면 형제인 네가 주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 <Your love has given me ~>는 <S+V+IO(에게)+DO(을, 를)>로 구성된 4형식 문장으로 <great joy and encouragement>가 직접목적어(Direct Object)이다. * <has give>와 <have refreshed>는 <Have+P.P>의 현재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 <brother>는 <you>가 누구인지를 <you> 바로 뒤에 ()를 찍고 보충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STUDY & THOUGH

■ 본문은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를 상전으로 모시다가 달아난 종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서신 중 문안인사에 이어진 내용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실을 밝히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my God)이라 한 것은 그가 일대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암시를 준다.

■ Who do we pray for? What thanksgiving do we give when we pray for them?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능력의 통로, 믿음(막5:24-35)찬394장

이 땅에 임하신 그 왕은 어떻게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첫째, 항상 일하십니다(29-30). 한 여인이 당한 12년간의 질고와 그에 따른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셨고 때가 되어 그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심도 그 왕이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신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벧4:12-13). 둘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27-29). 겨자씨 한 알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왕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생긴 작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온전한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33-34).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의 행동은 그의 고백을 통해 온전한 구원에까지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막5:21-23, 36-43)찬528장

같은 시간 속에 아이로의 믿음 역시 부족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그는 주님이 오셔서 그의 딸을 접촉함으로써 치료됨을 믿었습니다(22-23).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그 왕은 그 수준에 맞춰 겸손히 응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다(34-35).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한 때가 그 왕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그

왕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41-43). 한마디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한마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일은 아이로의 약한 믿음을 통해 권능을 만천하에 나타낸 첫 표적이 되었습니다. 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수 그 왕을 배척하는 세상(막6:1-6)찬397장

믿음은 권능을 경험하지만 불신앙은 왕의 길을 막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능력의 나타남을 막았습니까? 첫째, 그 왕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분과 그 말씀 위에 살 때 참 믿음을 가집니다. 둘째, 그들의 선입견이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3). 평범한 일상생활 속

에 숨겨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고 타성에 이끌린 마음은 그 왕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 배척하는 마음 때문입니다(5-6). 교만은 발전해 자기를 왕으로 삼기 때문에 그 왕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그 자리를 양도하고 그 왕을 섬김으로 그 왕의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목 왕이 주신 전도지침(막6:6-13)찬262장

그 왕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만드신 그 왕은 구원의 수단인 전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첫째,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6-7). 여러 촌에 보내실 때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영혼을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 왕이 다시는 심령이 되게 하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둘째, 청빈을 통해 그 능력이 보

존되게 하십니다(8-9). 전도자는 단지 지팡이 하나와 단별 차림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실천이 아니면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그 왕의 능력이 머물러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메시지와 증거를 남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11-13). 회개의 복음이 생명이요 그 증거는 전도자가 떠난 후에도 계속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금 순교적 신앙(막6:14-29)찬342장

그 왕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3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권능이 세례요한의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여 악한 정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의 전도의 증거는 오늘 교회 전도의 본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20). 헤롯의 간음과 살인의 죄

를 나단처럼 지적하고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나라의 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진리를 끝까지 전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책망으로 감옥에 갇혀 모함으로 죽임을 당해도 그의 증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적 자세가 없이 오늘날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세례요한의 피의 흐름을 배워야합니다.

토 그 왕을 대적하는 세상(막6:15-29)찬390장

전도의 현장인 세상의 성격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첫째, 세상은 그 왕의 능력을 두려워하도록 돼있습니다(16).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머리를 부수지 못함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사탄의 꾀계를 통해 그 왕을 대적합니다(20).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은 하만처럼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다. 그 왕의 지혜를 결코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은 살해의 위협으로 교회를 대적합니다(24-29).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없애려했으나 도리어 그 죽음이 사탄을 모두 멸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죽임으로 죽음을 이기는 왕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초/대/시



시인 석정희 열 아홉줄로 엮은 코로나

시인 석정희 약력: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모이 쪼던 비둘기 때 갑자기 돌팔매 맞듯 날아 흩어진...

마치 전쟁을 알리는 영화의 뉴스와 포개어지며 스산하다...

뒤엉키는 발길들 소나기 구름 몰려 오는...

외출 통제, 그러나 고난주간을 아이들과 함께 한다!

UMC, "Stay Home"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고난주간과 부활절기념 아이디어 제공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많은 가족이 대강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도개서 부활하셨습니다!"와 그 에 대한 응답 "정말로 주님은...

다락방(The Upper Room)에서 출판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족 기도시간에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한 일들에 대해...

△간단한 식사-가장 오래된 영적 훈련 중 하나인 금식은...

아니라 집에서 축하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와 같은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말...

다른 아이디어들

△일정 기간 전자기기(TV,...

사회활동을 한다. 이것은 자녀에게 금식에 관해 가르치는 또...

△아이들 연령에 적합한 사순절 성경공부를 하거나 로리...

된다. △달걀 상자에 흙으로 채우고, 천수국, 피튜니아 또는...

△요한복음 13장 1-11절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 근거해...

고난주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사순절, 고난주간 및 부활절 동안 자녀들이 예수님이 왜...

성금요일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는...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주일학교...

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버로우는 부모님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부활주일 이후의 아이디어

부활절 동안 주님의 부활을 계속 기념하기 위해 "가족 예배...

또 다른 부활주일 후 활동은 친절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식사 간소화, 사순절 성경공부, 가족간 세족식 등 다양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알려줘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